

LG화학, Non-포스겐 PC 공정 개발!

포스겐 가스 사용 않고 경제성 높여 ... IT산업 성장세 따라 기대

LG화학이 고급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인 PC(Polycarbonate) 신공정을 순수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PC는 CD와 DVD, 핸드폰, 노트북, 모니터 몸체(Housing), 자동차, 건축용 소재 등에 두루 사용되는 첨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이다.

LG화학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Non-Phosgene PC 제조공정은 포스겐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첨단 신기술이며, 제조공정의 안전화, 단순화로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LG화학은 PC 신공정 개발이 화학공정 기술을 대부분 선진국에 의존해오던 국내 석유화학산업 역사에 기록될만한 기념비적 성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화학제품인 만큼 수익성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화학은 PC 신공정 기술에 대해 국내 및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9개국에 특허를 출원중이며, 비 포스겐 PC 공정 및 MDI 공정기술의 수출 및 합작에 의한 해외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7/29>